학교 내·외 안전망 구축 빈틈없이

전북자치도교육청, 지능형 CCTV ·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학교안전 강화 종합대책 일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안전 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능형 CCTV 및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2023년도 대비 8억6200만원 증액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학교에서 자체 보유 중인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 약 1,200대를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CCTV 시범운영(10개교), 효과적인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운영(20개교)에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및 외부인 무단침입 등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외 보차로 설치, 안심승하차존(Drop Zone) 조성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16억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내외 학생 교통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빈틈없는 교내외 안전망 구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한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상반기 감사담당 공무원 맞춤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7일 양일간 교육연수원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장학사 등 12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공무원의 소통 및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도 마련됐다.

특히 감사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목 선호도를 조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홍열 감사관은 "맞춤형 연수를 통해 다양한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감사 역량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공명정대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조화림 국제처장 등 전북대학교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전북대 국제센터 설치 및 현지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북대,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 나서

키르기스스탄 현지 대학들과 교류협력 강화 등 협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앙아시아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화림 국제처장 등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전북대 국제센터 설치 및 현지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유학생 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했다.

먼저, 대표단은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를 찾아 라술 아바즈베코비치 차관과 면담하고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키르기스국립대학교와 키르기스국립기술대학교, 유라시아대학,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앞서 전북대는 키르기스국립대학교, 키르기스국립기술대학교 등 두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키르기스국립대학교는 외국어대학 내에 한국어학과가 있고, 국제관계학과 내에도 한국어반 운영을 통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등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전북대와 키르기스국립대는 향후 한국어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연간 20명 규모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키르기스국립기술대학교와는 전북대학교 국제센터 설립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여기서 양성된 학생들이 2+2 복수학위 및 석·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대에 진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양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 정보전산, 기계 등 공학계열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등을 방문해 지난 수년간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청취하고, 유라시아대학과 빌림카나국제고등학교에서는 전북대학교 홍보와 유학생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유라시아대학과는 향후 간호학 분야의 교류를 위한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남원 서남대 폐교 캠퍼스를 활용한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 유치 일환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와 지방 한 곳에 거점 고등학교를 선정해 그곳에 전북대 유학반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의 한국과 한국어, 한국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며 "키르기스스탄 내 주요 대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전북대의 유학생 5,000명 유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2024 정시모집 수도권 포함 전국서 70% 지원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립군산대학교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학생들의 역방향 지원 현상이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의 올해 정시모집 분포를 보면 전북지역 정시 지원자의 수가 예년과 비슷하지만, 그 비율이 전년도 42.4%에서 13% 감소한 29.4%를 보인 반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학생 지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37%의 수도권 점유율을 나타냈다.

또한, 지원자가 거의 없던 부산, 경남 지역 수험생까지 합세해 전북 및 수도권 외 지원자 비율이 33%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국립군산대학교의 지원생 분포가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지원자의 70%가 전북을 제외한 전국 각지 출신으로 확대된 이번 결과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벚꽃신드롬을 타파한 좋은 예라는 평가이다. 벚꽃 속설을 완전히 뒤엎은 이 현상은 국립군산대학교가 강도 높게 진행해 온 교육혁신의 결과로, 다양하고 유연한 수요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프로그램 개발이 적중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그동안 국립군산대학교는 학생 및 기업수요자 중심의 ICC기반 특성화대학부로의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학생 선택권과 취업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국 국립대학교 최초로 전과 FREE 대학을 선언하고, 대규모 무학과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수직 상승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김종길 입학처장은 "전국 각지에서 70%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린 이번 결과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9회 말에 적시타를 때린 것 같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입시 때면 미달학과가 속출해 가슴 졸이는 것이 지방대학의 현실이지만, 이번 결과가 시대 트렌드와 수요자(학생, 기업) 요구를 반영한 교육혁신을 통해 벚꽃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는 1월 31일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대학교 이존화 교수(수의학과)가 생명과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인 제8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성남시 한국한림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세균전달 시스템 백신 플랫폼 ASF · AI 효과적 예방 기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전북대 이존화 교수, 카길한림생명과학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존화 교수(수의학과)가 생명과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인 제8회 카길한림생명과학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6일 성남시 한국한림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상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수여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인수공통 전염병과 동물감염병 백신 전문가다. 세균을 이용한 항원 발현·전달 시스템을 고안해 동시에 여러 표적항원을 숙주세포 내에서 발현시킬 수 있는 '세균전달 시스템 백신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이 교수의 백신 플랫폼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보건적 문제를 야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의 효과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의 부재로 이들 전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신개념 백신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존화 교수가 개발한 백신 플랫폼은 이를 이용한 미끼백신을 통해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동물의 건강은 동물과 공존하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됨은 물론,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교수의 연구업적은 이 분야에서의 학문적 기초와 산업적 기여가 함께 돋보인 매우 뛰어난 성과"라고 밝혔다.

이존화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금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각종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노력들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백신들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팀과 함께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책국에 교육국 종속 우려"

전교조 전북지부, 자치도교육청 인사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에서 정책국장 휘하에 있던 과장이 교육국장이 됐다"며 "교육국이 정책국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인사라고 보여 우려가 크다"고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국·행정국 2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해 3국으로 바뀌는 것에 우리가 동의했던 것은 그 취지가 조직 내 균형과 견제를 맞추고, 행정적 논리보다는 정책적 전문성에 의해 전북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책국장에 교직 경력 없는 측근이 앉아 우려를 낳더니, 급기야 이번 인사에서 정책국장 휘하에 있던 과장이 교육국장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그 지역의 교육 대통령과 같다. 따라서 고도의 도덕성과 통솔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신임 정읍교육장에 대한 부적절 품행으로 민원제기가 있어 정읍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임 장수교육장에 대해서도 전북초등교장협의회 이름으로 일부 교장들의 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 양 문서를 작성하고 타 지역에 치적으로 자랑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해당 문서에는 '전북초등교장협의회 주요 성과'로 문제행동 학생 분리 주체와 장소, 학교장과 교장실 지정 반대, 교장 중임 면접 폐지, 청렴도 평가항목 삭제 등이 제시돼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의혹으로 대기발령됐던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나서 이미 재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끝으로 전교조 전북지부는 "신규교사를 지역과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는 개정 인사기준 단 한 줄을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50명이라는 이례적인 규모로 발령 내버린 인사 참사가 강행됐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공정 · 투명한 계약으로 전북교육 청렴하게

전북자치도교육청, 계약분야 청렴도 향상 총력… 1대1 컨설팅 · 행정연구회 등 새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드는 데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계약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 교육 실시, 알기 쉬운 책자 형태의 '계약업무 길잡이' 제작·배부, 개정 법령 안내 등 계약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계약심사제도 도입,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과정 및 계약정보 공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기술직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본청 사업부서 계약담당자 교육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와의 1대1 컨설팅, 계약분야 행정연구회 등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계약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청렴도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반부패 · 청렴서약 결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원장 박영석)은 지난 6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2024년 반부패·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학생해양수련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청렴한 교육행정 일환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렴실천 다짐문 낭독 △청렴 실천 서약서 작성 △갑질 관행 근절 교육 등이다.

박영석 원장은 "더 청렴하고 더 특별한 전북교육 만들기 위해 우리원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14일 김제시 산업발전 3D프린팅 세미나

전주대학교 RIS사업단은 오는 14일 라한호텔에서 김제시 산업 발전을 위한 3D프린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기계공학과는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김제시와 함께 RIS특장·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 3D프린팅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 관계자 및 전북권 대학(원)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경량화 및 구조최적화를 위한 3D프린팅 기술 고려설계(인천대 박상인 교수), 자동차 분야 3D프린팅 기술 적용 사례(프로토텍 안치선 차장)가 진행된다.

이후, 고유연 생산제조를 위한 대형 3D프린팅 기술(한국탄소산업진흥원 오제하 박사), 특장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3D프린팅 기술 적용을 위한 부품 선정 방법(전주대 김삼연 교수)가 이어진다.

/장은성 기자